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17:26-30 [흠정역]

26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28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29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30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아들의 날’ 즉 ‘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림 기간 중에 사랑과 은혜를 전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은혜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의 7년 기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주님의 분노 [Wrath of God]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이 7년이 끝나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벌하시고, 예루살렘이 임하시어 천년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에도 종말의 시기에 관하여 공부 말씀을 전했읍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종말의 시기에 관해 여러분과 공부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꼭 들어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왜 종말의 시기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자세히 공부함으로써 주님 오실 날에 잘 준비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1. 노아의 때와 은혜의 복음

히브리 역사책인 야셀서 [Book of Jasher]에 의하면 대홍수는 창세후 1656년 [지금부터 4,125년 전]에 발생하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창세후 2048년 [지금부터 3733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물론 대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퇴폐를 보시고 천사 두분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으며 이 도시들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결정을 하신 분으로서, 수천년 후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자신 [사람의 아들: 人子]이 다시 한번 믿지 않고 사악한 세상을 다시 징벌할 마지막 때에 관하여 먼 옛날의 두 사건을 들어서 미리 이와 같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대홍수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간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접하여 생산해서는 아니될 거인들을 낳아 퍼트려 이로 인해 인간 세상이 매우 사악하게 된 것을 보시고 이를 한탄하시고 모든 살아 숨쉬는 피조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4-7]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5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대홍수 이전에 120 년의 ‘은혜의 기간 [Grace Period]’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므두셀라와 그의 손자 노아로 하여금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다고 야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그들의 날들이 120 년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야셀서는 좀더 자세히 120 년의 은혜 기간 중에 노아와 그의 할아버지 므두셀라 두분이 쉬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3]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셀서 1536AM: 영한 번여: 필자] 6 여러 해가 지난 후 노아 생애의 480 년에 주를 따르던 사람의 아들 중 주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무드셀라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드셀라에게 말씀하시되, 7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선언하라.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들의 사업들을 포기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내리기로 선언한 징벌을 취소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8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일백이십년의 기간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너희의 사악한 길들을 포기한다면, 나 역시 너희들에게 말하였던 악한 [계획]을 버리고 시행하지 않으리라.” 9 노아와 므두셀라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매일 쉬지 않고 전했다. 10 그러나, 사람들의 아들들은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귀 기울이지도 않았으니 그들은 목이 곧았기 때문이었다.

노아의 생애 595 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대홍수를 피할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5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은 비웃을 따름이었고,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건축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미친 사람들 취급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세상 사람들 모두 120 년의 은혜의 기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홍수 계획이 실천될 것을 노아는 믿었지만, 사람들은 허황된 소리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확히 언제 홍수가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재림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날이 오기전에 있어야 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역시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는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드디어 5 년 후에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대홍수 5 년 전,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던 해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었고, 따라서 그는 아들 노아의 방주 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두셀라는 노아 옆에서 방주 건설 사업을 지켜보면서 격려하시다가 방주가 완성되던 해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격려가 노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들 없이는 방주 건설 사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에 가족 모두 힘을 합쳐 동참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완성하자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가 임박한 [Imminent]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날에 홍수가 시작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놀려 댔을 것입니다. “자, 네가 그 커다란 방주를 완성했으니 언제 홍수가 올것인지 말해다오. 그래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노아는 잠자코 방주에서 살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더러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이어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쌍씩 불러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의 행렬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보았을 뿐 아무도 그의 복음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입구에서 이 동물들이 모두 들어가는 과정을 관장하고 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13-16] 바로 그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14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15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가니, 16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나는 여기에서 대홍수의 모든 세부사항에 관해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홍수 시작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의 순서와 조건들이 오늘날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방주에 넣고 밖에서 문을 닫으신 주님께서 종말의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이제 종료되었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말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2. 은혜의 기간과 휴거

노아의 시대에 은혜의 기간이 120 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므두셀라와 노아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언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현세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파들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해를 추정하고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가 그 시기가 지나자 헛된 말이 된 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회의 휴거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란 기간 7 년동안에도 휴거 사건에 자극받아 믿게될 영혼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거될 교회와는 달리 말할 수 없이 큰 환란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의 생전에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의 대상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신약 교회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현세의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이 휴거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4:2-3] 내[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도 7 일 후에야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주님께서 닫으신 일은 앞으로 올 휴거 [Rapture]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홍수는 종말의 대환란에 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대로 될것으로 믿는 것이 주님의 예언적 설명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대홍수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이 땅에서 분리시켜 방주 안에 안전하게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리고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휴거는 이 땅에서 신실한 신자들, 즉 신약 교회를 다가올 대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 휴거 계획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모두 예언하였습니다. 즉, 나는 환란전 휴거 [Pre-tribulation Rapture]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 때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변환될 것을 예언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신랑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식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51-54]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또한 휴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지 아니하고 구름 속에서, 즉 공중에 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을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로 불러 올리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휴거 사건은 주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일어날 ‘공중 재림’의 휴거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5-17]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휴거야말로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악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온갖 문제들과 악한 영향들로 인하여 매일 폭력, 도덕적 폐퇴, 악한 범죄들, 정치적 패악, 나라간 전쟁과 분쟁들 등으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꾼들과 난관들이 힘들게 하여 마음이 상하고 평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 주님의 공중에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혼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여 주님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입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매일 소망하는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휴거는 모든 참된 크리스찬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림의 때에 관하여 사전에 발생할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7 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휴거 후 얼마정도의 기간, 즉 최소한 7 년의 환란 기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에 관하여는 계시록 19 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재림전 발생할 징조들에 관하여 많이 논하였고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들을 발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 징조들에 관해 말하기 보다는 휴거에 대한 대비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부를 통하여 휴거가 임박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성경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멘.